진은정 사장 / (주)성광시스템

국내 순수 축산기술, 세계시장에 인정받다!

▲ (주)성광시스템 진은정 사장

1970년대부터 국내 양계산업이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입 기자재에만 의존하던 것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이었다. 당시 국내 순수 기술로 원형자동급이기 제작을 시작으로 축산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이기, 급수기, 휀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자재를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해외 바이어들까지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주)성광시스템을 찾았다.

30년간 끊임없는 연구

(주)성광시스템(대표 진은정)은 양계, 양돈의 급이기, 급수기, 휀 등 30여년간 외길만을 달려온 축산시설 기자재 제작 전문 업체이다. 진은정 사장의 부친인 진달만 회장은 1976년 당시 육계인 대호농장을 경영하면서 필드경험을 바탕으로 1978년 원형자동급이기인 '꼬꼬급이기'를 첫 선보였다. 진달만 회장은 사료 허실 방지와 사료급이의 획기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여타 외국제품이 출시되던 때에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농장사육환경에 적합한 기자재를 개발하면서 점차 산란계용, 종계용, 모돈용, 자돈용 등 사육형태에 맞는 급이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축사시설에 맞는 디스크식 급이기, 종계 평사용 찬넬 급이기, 니플급수기, 원형급수기 등 농장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해 국내제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자랑하기도 했다.

세계시장 진출

(주)성광시스템은 그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양계 · 양돈장 설비는 물론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1998년 나이지리아에 양계용 원형자동급수기 수출을 시작으로 가나, 홍콩, 일본, 미국 등 자동 급이기 · 급수기 수출에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2003년에는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에 산란종계장이 설립되면서 동사의 급이 · 급수시스템 지원으로 인류의 건강한 먹을거리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아프리카 앙골라에 대규모 양계단지 사업이 조성되면서 기자재 부분에 대해 성광시스템이 수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앙골라는 오랜 기간 내전으로 인해 고기공급이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원 사업으로 대규모 양계단지와 도계장, 사료회사 등의 설립을 계획했다. 이에 따른 급이기 · 급수기 · 안개분무기 등 내부 기자재 부분에 대한 수출을 (주)성광시스템이 이루어내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앙골라 대규모 양계단지는 육계사 240개동(각 동당 5천수 규모)과 종계사 27개동(각 동당 5.5천수 규모)으로 확정되면서 국내 축산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기회가 되고 있다.

전국 15개 대리점

(주)성광시스템은 경기도, 충남 · 북, 전남 · 북, 경북, 제주까지 총 15개 대리점을 통해 빠른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 본사에서만 업무를 치중하다보니 전라남도 등 거리가 먼 지역에서 AS나 방문 요청을 했을 때 적어도 1~2일의 소요시간이 걸려 100%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현재는 전국 15개 대리점을 통해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 성광시스템 제품의 급이기가 설치된 육계농장

계획&목표

진은정 사장은 "현재까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캄보디아, 케냐, 홍콩, 미국 등 세계적으로 동사의 시스템이 설비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금년에도 앙골라 외에 중국, 동남아시아, 이집트 등 해외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품개발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품 테스트를 위해 운영하던 시험농장은 앞으로 시설 복구와 개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며 제품의 끊임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과 연구비용을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치 않는다."는 것이 진은정 사장의 마인드로 대신 대량생산을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외국제품이라 선호하는 것 보단, 국내 제품을 써보고 얘기해보자!"고 권유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국내 기술발전과 함께 국내 축산농가가 발전하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고 전했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